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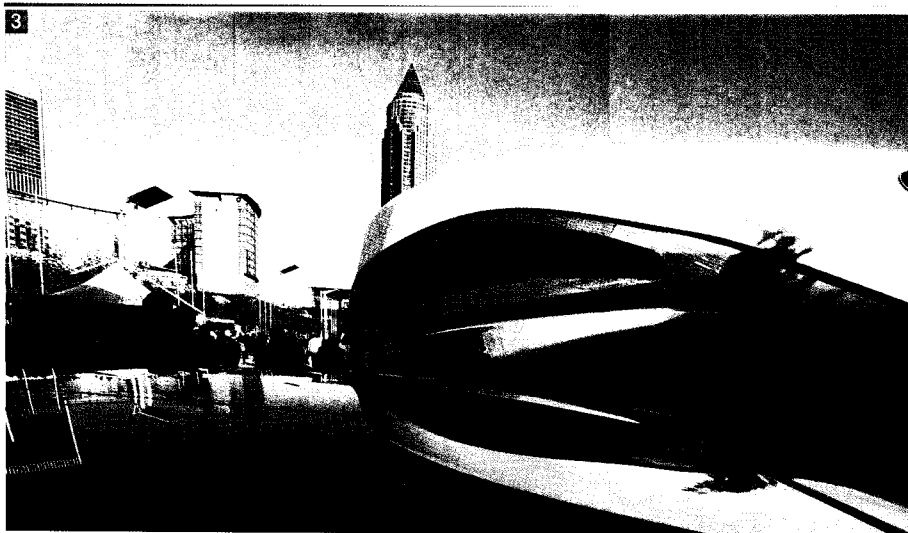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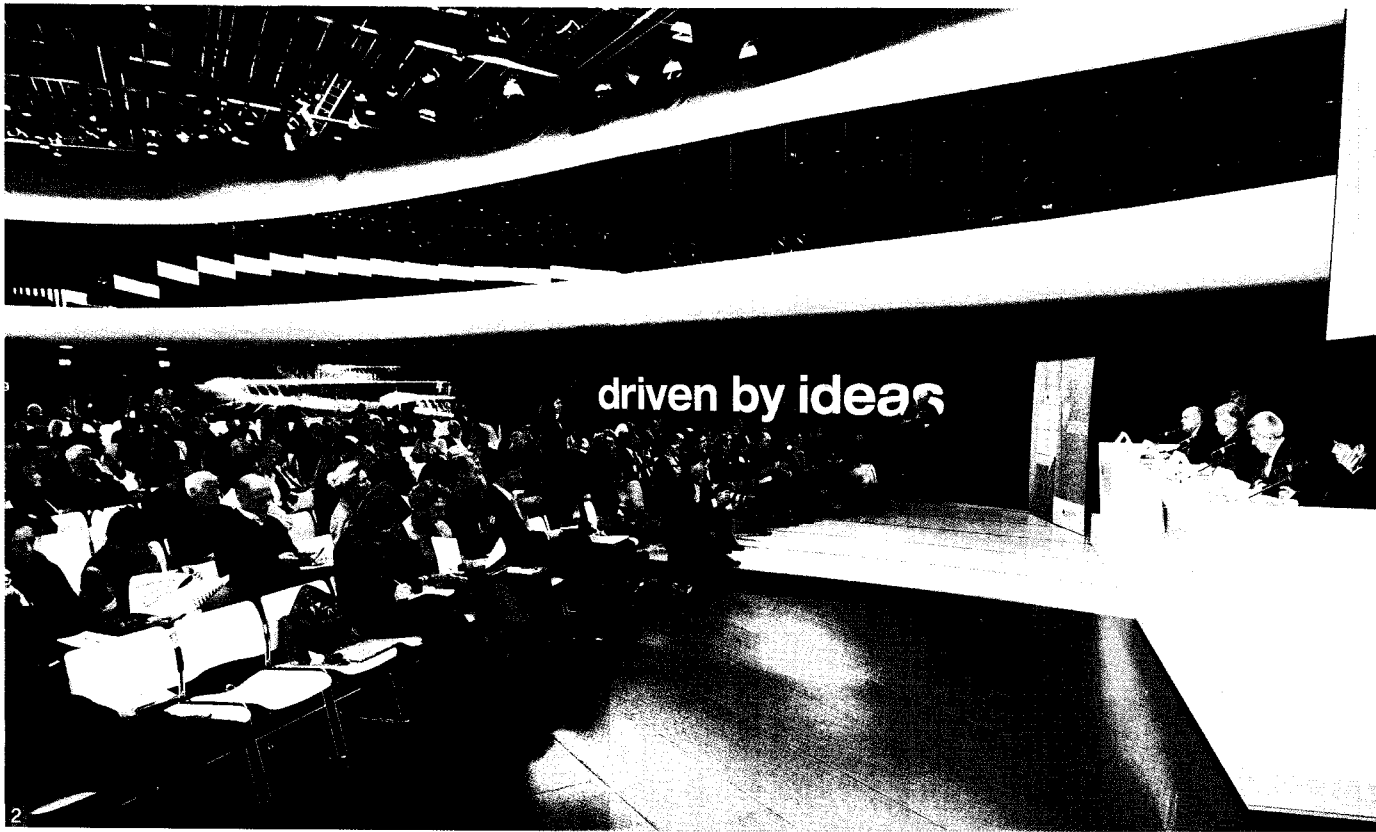


‘스토리텔링, 스토리셀링’내세운 2011프랑크푸르트도서전 106개국 7384개사 30만 명 참가한 책의 향연 인협, 한국인쇄문화관 꾸려 한국인쇄문화각인

세계 최대의 도서전인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이 지난 10월 12일 개막해 16일까지 열렸다. 올해로 63회째를 맞은 이번 도서 전에는 약 30만 명에 달하는 관람객이 방문했으며 106개국에서 7384개사가 참가했다. 15세기부터 내려온 전통을 갖고 있는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은 소설, 시집 등의 일반도서류를 시작으로 경제서적, 연구서적과 컴퓨터 및 기술서적을 비롯하여 아동도서, 예술서적과 필름, 라디오, 텔레비전에 이르는 다양한 품목이 전시되었으며 개최규모는 17만2000㎡에 달했다.

글 |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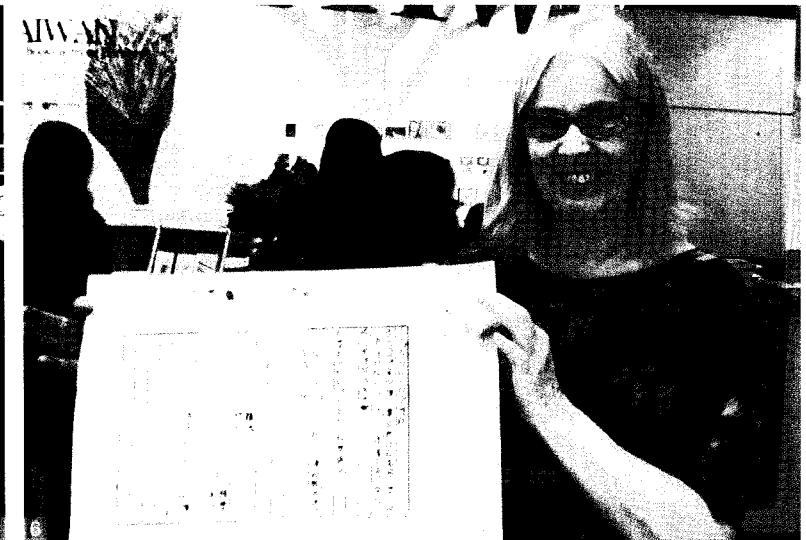
사진 | 이종찬 부장 heekyung@print.or.kr



1.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을 알리는 깃발
2.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개막전 행사모습
3.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이 열린 전시장 전경

올해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는 아이슬란드가 주빈국으로 참여해 토론과 콘서트, 사인회 등을 통해 자국의 도서와 문화를 소개했으며 출판 전문가들을 위한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아카데미'도 올해 처음으로 개최됐다. 또한 현지의 고서를 구입할 수 있는 고서전, 요리 관련 도서와 만날 수 있는 맛있는 갤러리, 음악출판사를 소개하는 음악관 등도 설치, 운영되어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이번 전시회 기간 동안에는 '스토리텔링과 스토리셀링'을 주제로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새롭고, 최신 경향으로 광범위한 비즈니스 라운지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서적, 영화, 게임 사업자들 그리고 펀드 전문가와 법률가들이 장래의 잠재적인 고객을 만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제공했다. 도서전에 등록된 에이전트도 크로스 미디어 사업에 동참할 수 있었으며 최근 미국출판사 랜덤 하우스와 게임제작사 THQ의 체결처럼 협력사업의 새로운 형태를 이어주는 공간이 되었다.





4.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설치된 한국인쇄문화관
- 5-7. 한국인쇄문화관에 설치된 직지 시연행사에 참가하는 외국인들
8.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참가한 한국 업체들
- 9-10. 한국인쇄문화관에서 이루어진 외국업체들과의 수출상담
11. 작가와의 대화에 참여한 관람객들

한국 인쇄 · 출판업계 50여 업체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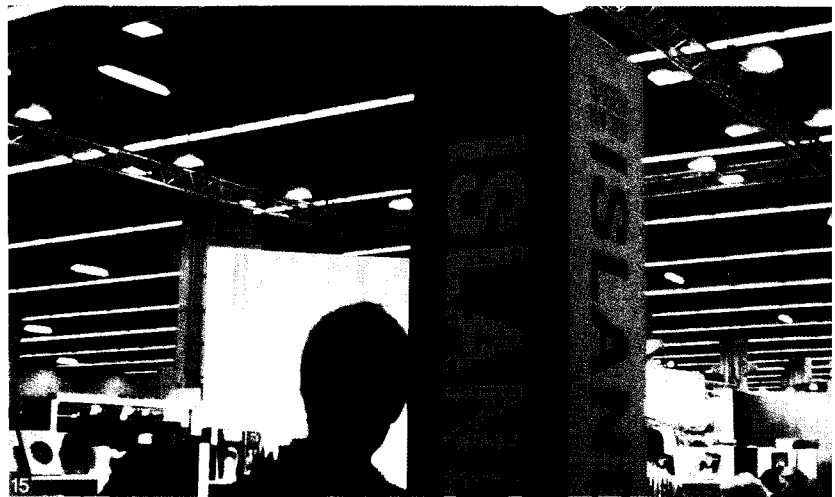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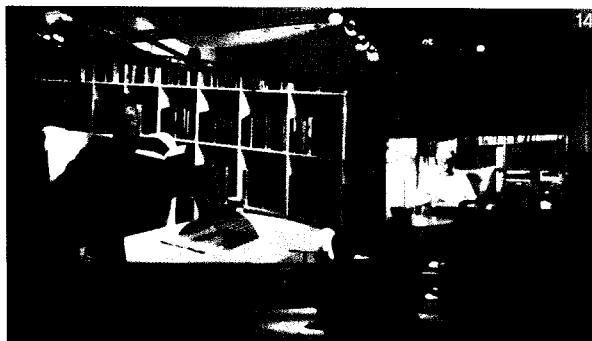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형두)는 11개 출판사와 관련단체가 직접 참가하고, 18개 출판사의 위탁전시를 받아 한국관을 꾸렸다. 한국관에서는 참가사들의 대표도서 영문초록을 수록한 브로슈어와 한국의 출판 동향을 포함한 영문 회원명부 등을 배포하는 한편으로 올해 볼로냐아동도서전에서 호평 받은 '주제가 있는 그림책-소녀 진'을 선보였다.

또한 외국어로 출판된 한국의 문화, 역사, 예술 관련 책을 전시하는 '책으로 가보는 한국' 특별전도 운영되어 호평을 받았다. 국내 참가업체는 총 48개사가 참여했으나 지난해의 75개사에 비교해 다소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출협이 주관한 한국관외에도 건축세계사, 스콜라스, 에릭양에이전시 등 19개사는 개별 부스를 설치해 이번 전시회에 참여했다.

한편,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김남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 한국인쇄문화관을 별도로 설치, 운영해 관람객들의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33평방미터 규모로 조성된 한국인쇄문화관은 정아문화사, (주)아시아프린팅, 타라TPS, (주)글로벌프린트팩이 참가하였으며 우리나라 인쇄문화산업을 소개하는 직지 영인본, 직지 홍보 리플렛, 한국의 인쇄문화 홍보물 및 한국의 고급책자, 성경, 사전 등의 우수인쇄물이 전시되어 관심을 받았다. 한국인쇄문화관은 네임 보드를 Printing Korea로 하여 한눈에 한국의 인쇄관심을 쉽게 알수 있도록 했으며 한국관 내부에서는 직지 체험 및 인쇄문화를 알리기에 주력했으며 개별업체관에서는 수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균형감 있게 구성한 것이 특징이었다. 참가업체들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활발한 상담과 함께 수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12. 프랑크푸르트 도서전2011의 주빈국인 아이슬란드 전시장 전경
13-16. 프랑크푸르트 도서전2011에 주빈국인 아이슬란드는 '멋진 아이슬란드'를 주제로 다양한 전시회와 정교하게 제작한 360도 스크린의 설치로 아이슬란드의 풍경과 자연 현상의 웅장한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여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디지털 출판, 강세 지속돼

2011프랑크푸르트도서전은 최근 수년간의 전시회처럼 도서 산업뿐 아니라 영화, 게임, 정보 통신 기술과 같은 다른 관련 산업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출판 산업의 영역이 크게 확대되는 트렌드를 보였다. 디지털 출판 서비스와 크로스미디어 제품에 대한 법률 및 금융 컨설턴트가 활발하게 펼쳐졌으며 전시회 기간 동안 3200여회의 이벤트가 열렸다.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출판 산업은 리뉴얼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이며, 전자 독서 기기 외에 도서 박람회를 방문하는 스토리텔링의 새로운 형태와 멀티미디어 형식, 새로운 아이디어와 활발한 실험을 목격했다. 아이디어의 거대한 다양성 진취적인 정신 및 기술 기회의 조합이 모색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은 지난해에 비해 방문객의 수가 약간 증가했는데 주최측은 국제 교육 및 네트워킹 행사에 대한 관심으로 새로운 컨퍼런스 브랜드인 프랑크푸르트 아카데미가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것으로 설명했다.

독일 출판사 및 서점 협회의 Gottfried Honnefelder회장은 “더 많은 글로벌 도서사업은 되도록 적어도 1년여 한번쯤은 직접 만나 모든 사람의 필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의분위기는 낙관적이며 전자책 사업이 중요성을 인정받기는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역사가 깊은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은 전시 참가자 대부분이 종이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출판사가 자기 도서를 가지고 나와 저작권 계약을 하는 게 전통적으로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의 주된 목적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IT바람이 어느 해보다 거세게 불어 전자책에 대한 다양한 세미나가 열리고 솔루션과 디지털 도서관도 소개되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전자책을 들고 나온 업체는 전자책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아마존, 애플, 구글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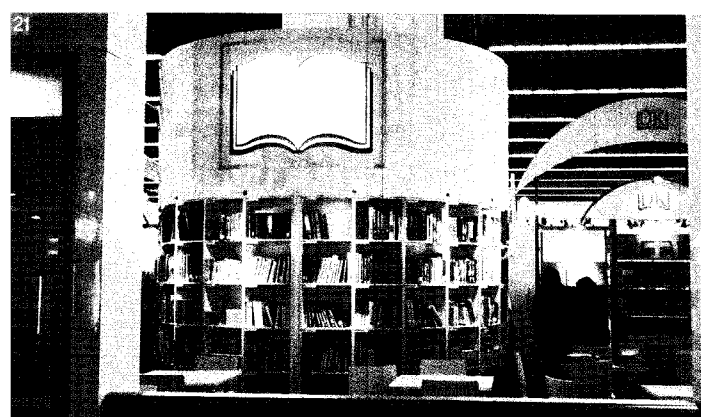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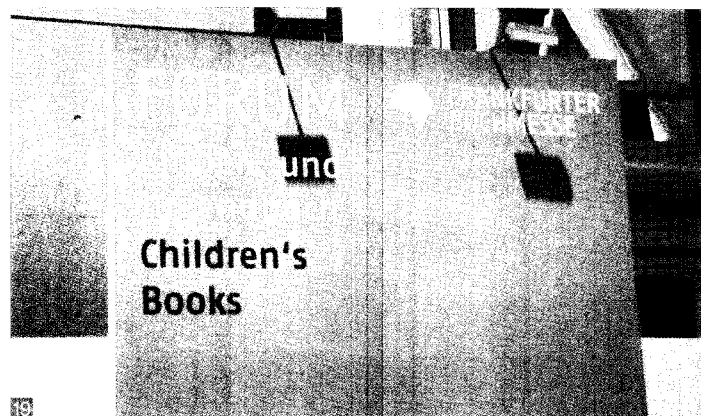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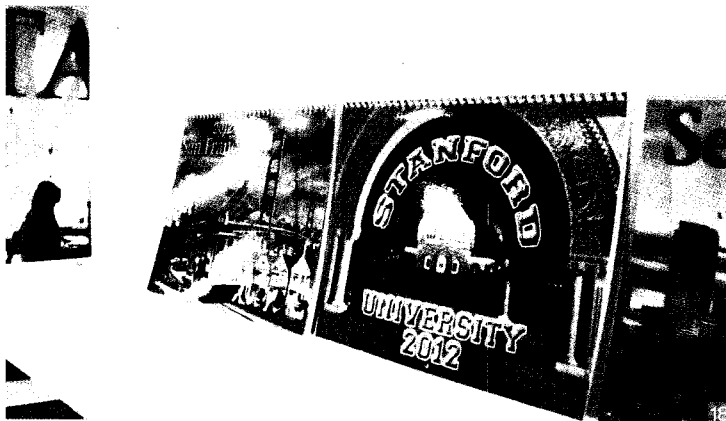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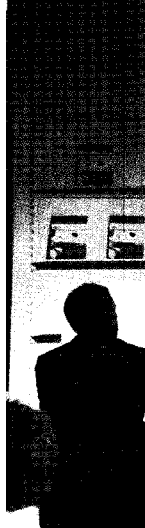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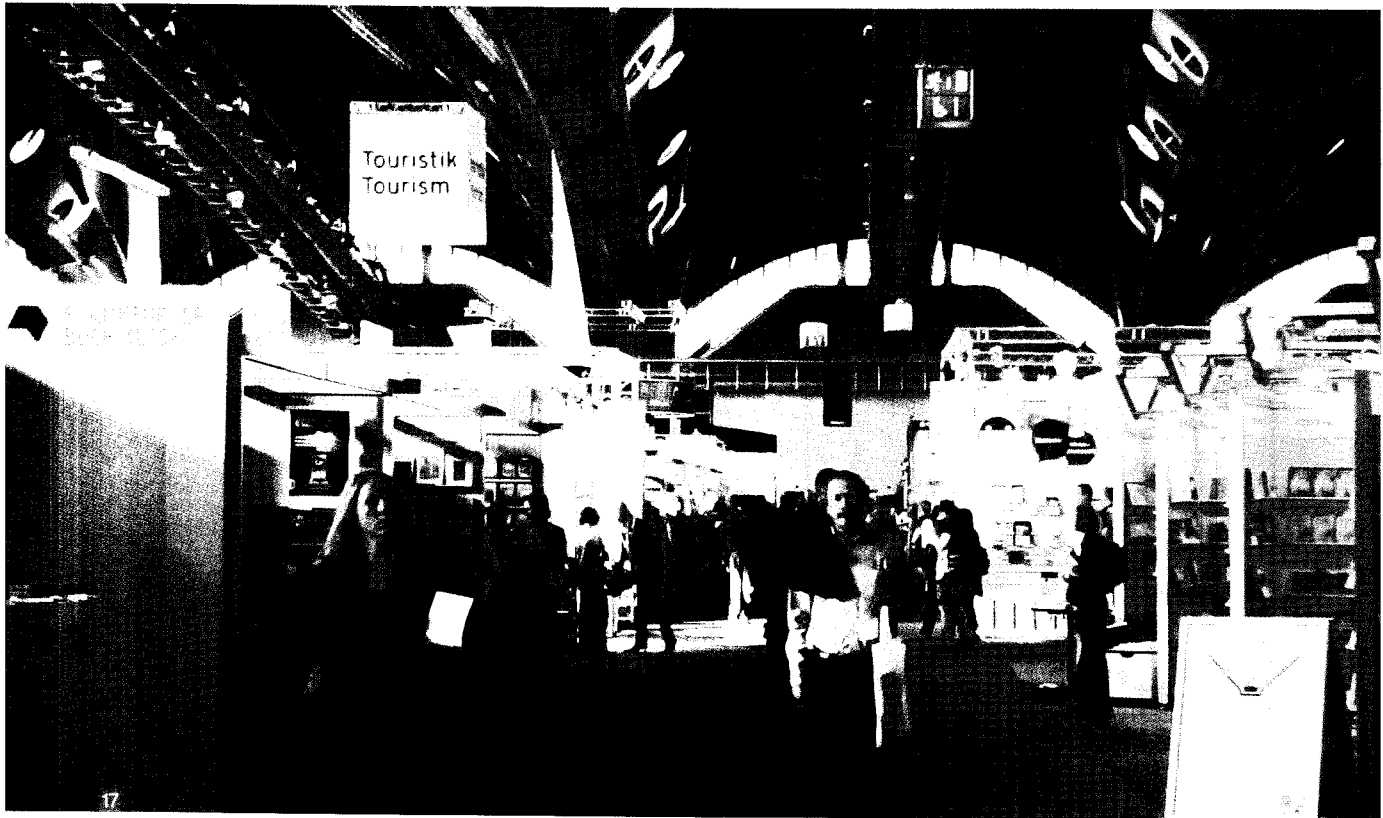
한편으로 이번 도서전에서도 애플의 인기가 높았다. 주로 유아도서를 출판하는 곳이 많았으며 주로 외주 개발로 만든 비율이 높았다. 콘텐츠를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는 곳은 3~4개 업체에 지나지 않았다.

다채로운 이벤트 펼친 ‘멋진 아이슬란드’

올해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의 주빈국이었던 아이슬란드는 그 어느 때보다 아이슬란드의 문화에 대해 높은 이해도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멋진 아이슬란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별도로 조성한 주빈관에서 진행된 아이슬란드특별관에서는 방문자가 문학의 나라로서 아이슬란드의 웅대한 자연과 아름다움을 실감 있게 느낄 수 있도록 아이슬란드의 한 집에서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아이슬란드의 관계자는 “문학에 활기를 가져오지 않고서는 아이슬란드와 같은 작은 나라에서 약 30개에 달하는 출판사들이 독립적인 출판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시회 주빈국관의 하이라이트는 아이슬란드의 풍경사진 수백장을 사용하여 이루어진 파노라마였다. 특히 정교하게 제작한 360도 스크린의 설치로 아이슬란드의 풍경과 자연 현상의 웅장한 모습을 홈 시어터 혹은 그 이상으로 실감나게 볼 수 있게 한 것은 주빈국관을 찾은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또한, 전시회 기간 동안 매일 오후 5시에 아이슬란드어 작가 및 음악을 포함하는 행사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장으로 마련되기도 했다.





17-21. 프랑크푸르트 도서전2011에 참가한 각 나라의 부스 모습
 22-23. 프랑크푸르트 도서전2011에는 각국의 다양한 문화행사와 세미나들이 이루어졌다

다양성과 수준 높은 문화행사 선보여

2011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서는 처음으로 '세계 일주 전자책'을 소개하는 컨퍼런스가 열려 전자책과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전세계 출판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임을 예고했다. 홀 4.2에서는 전통적인 출판시장에서 영어권의 전자책들은 큰 사업 기회가 될 것임을 예고했으며 각국의 출판사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대응과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을 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프랑크푸르트 전시 센터의 야외 공간에서는 StoryDrive 회의가 열렸다. 다양한 학문과 학교 사이의 아이디어 교환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는데 협력하기로 하기로 했다. 서적, 게임 및 영화의 세계에서 업계 리더의 항성 라인까지 3개 산업을 하나의 크리에이티브 산업으로 융합을 논의했다. 또한 홀 6.0에서는 새로운 통합 센터가 개설되어 충족과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게임, 영화와 도서의 세계에서 에이전트를 장려하기 위해 전시회 기간 동안 운영되었다.

올해 프랑크푸르트전시회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디지털출판과 멀티코드로 정리된다. 또한 독자와의 소통도 강조되었다. 영화 같은 크리에이티브 산업을 포함하여 단순한 통합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개발되는 게임, 책등의 콘텐츠 뿐만 아니라 강화된 전자 도서 등이 멀티미디어의 미래로 제시되었다.

또한 저자들과의 대화라고 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은 전시회 기간 동안, 전시장 어디에서도 만날 수 있는 광경이었다.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는 전통적으로 비중이 높았던 저작권 매매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2012년 주빈국은 뉴질랜드

내년에 개최되는 2012프랑크푸르트도서전의 주빈국으로 내정된 뉴질랜드도 이번 전시회 기간 동안 뉴질랜드의 문학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뉴질랜드 출판업계의 관계자는 "2012년 주빈국으로 뉴질랜드의 역할은 우리의 작가, 출판사와 작가에 대한 전례 없는 높은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며 내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 독일 및 유럽과 함께 창의력과 독특한 관점을 공유하는 기회가 주어져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